

### 정읍 농촌지역 당뇨병 발생률과 당뇨병 위험인자; 6년 추적 조사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 일반내과<sup>1</sup> · 예방의학과<sup>2</sup>

송기호\*, 박종열, 남궁일성, 한성민, 이은주<sup>1</sup>, 이영수<sup>1</sup>, 조민우<sup>2</sup>, 이무송<sup>2</sup>, 김민선, 이기업

전 세계적인 당뇨병의 범람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당뇨병 발생에는 유전인자, 환경적 인자,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이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1997년 당뇨병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던 정읍 농촌지역을 다시 방문, 공복 혈당을 측정하여 당뇨병 유무를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은 1997년에 당뇨병 역학 조사에 참여하였던 대상자 중 2003년에 추적 검사가 이루어진 513명을 선정하였고, 6년 동안의 당뇨병 발생률과 당뇨병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당뇨병의 발생률은 1000인년당 13.7명이었다.
- 2) 성별로 분리해 분석했을 때 1000인년당 남자의 경우 14.9명, 여자의 경우 12.9명이었다.
- 3) 위험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체질량 지수, 복부 둘레, 이완기 혈압, 미세 알부민뇨, 공복 혈당량, 식후 2시간 혈당량, 중성지방 등이 당뇨병 발생에 의미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 4)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모든 인자를 이용해 다변량 분석을 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본 결과는 동일한 지역에서 6년 동안의 당뇨병 발생을 조사한 보고로, 향후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해 한국인 당뇨병 발생의 추이 및 그 원인과 위험인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당뇨병 환자에서 입원 동기에 따른 24시간 요중 유리 코르티솔 배설량

건양의대 내과 이창원, 황원민, 박근용

24시간 요중 유리 코르티솔 배설량은 쿠싱증후군의 선별 검사로 유용하다. 그러나 육체적 스트레스와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측정은 쿠싱증후군의 선별 검사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입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코르티솔 배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제 입원 동기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코르티솔 배설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입원한 73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동기에 따라 단순 입원 군(검사, 단순 혈당조절)과 스트레스 많은 군(감염, 수술 전 혈당조절, 심한 고혈당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서 24시간 요중 코르티솔(UFC)과 크레아티닌(UC)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환자수 (명)	UFC (μg/24hr)*	UC (g/24hr)	UFC/UC (μg/g)**	UFC > 90μg/24hr 인 환자수 (명)
단순 입원 군	46	59.7 ± 27.2	0.76 ± 0.30	91.5 ± 58.2	6 (13%)
스트레스 많은 군	27	100.5 ± 121.0	0.66 ± 0.31	164.5 ± 172.3	8 (30%)

(independent T test for equality of means : \* p=0.09, \*\* p=0.04)

많은 환자들에서 24시간 소변이 적절하게 얻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4시간 요중 코르티솔 배설량은 입원 당시의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크레아티닌을 보정할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쿠싱증후군의 선별 검사 목적으로 24시간 요중 코르티솔 배설량을 측정할 때 입원 중의 스트레스로 인해 쿠싱증후군의 위 양성율이 증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